

Contents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라!

Day 1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을 넘어서라_ 히 2:1	... 4
Day 2	더 깊은 성소에까지 나아가라_ 히 9:11~12	...12
Day 3	찢어진 휘장 속으로 들어가라_ 히 10:19~22	...21
Day 4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결단을 하라_ 히 10:23~25	...30
Day 5	하나님의 임재 유지를 위한 영적 연료를 공급하라_ 히 10:36~39	...38
Day 6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습관화하라_ 히 12:15~16	...46
Season 1	1차 특별한 토요일전새벽예배	...55

| 예수님의 제자처럼 쓰임 받게 하소서!

- 4. 23 / (1) 연약함을 넘어 귀하게 쓰임 받은 제자 <베드로>_ 벤전 4:7~8
- 4. 30 / (2) 사람들을 세우는 영향력을 지닌 제자 <안드레>_ 요 6:8~9
- 5. 7 / (3) 불꽃같은 삶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제자 <야고보>_ 행 12:1~2
- 5. 14 / (4)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한 제자 <요한>_ 요 21:21~23
- 5. 21 / (5)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며 사역한 제자 <빌립>_ 요 1:43~45
- 5. 28 / (6)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 제자 <바돌로매>_ 요 1:45~51



Day 1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을 넘어서라

히브리서 2: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1.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 _____

-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분의 깊이 있는 _____를 경험하는 것이다.
-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까(시 42:1~2).”

2)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주, 참 부모를 모르기에 그것을 대신할 것들을 찾으며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평생을 보낸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물질, 사람, 명예, 다른 우상들로 채우지만 이러한 시도는 _____로 끝날 뿐이다.

이러한 인간의 깊은 동경의 본질을 꿰뚫어 본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_____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3)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_____를 체험할 때 느끼는 기쁨에 필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조물인 우리의 최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_____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_____를 받는다.

1) 토마스 아 캠퍼스는 “깊은 영성의 삶을 살려면 외부 세상의 어떤 방해

도 받지 않고 그 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_____ 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큰 _____ 와 _____ 을 누리게 된다.”

2)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_____ 을 자신도 가지길 원하기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가지려는 마음은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성취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_____ 쉽다. 사울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고, 예수님을 만난 젊은 부자가 그러했고, 데마가 그러했다.

3)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_____ 할 수 있는 영적 방법이 된다. 병이 들어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쉽다. 물질이 사라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더 쉽다.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분께 나아가기가 더 쉽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 한 언제나 _____ 는 방해를 받는다.

3.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 4가지

1) _____

도덕적 무감각은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_____에 대한 _____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기의 양심이 어느 정도 마비가 된다. 처음에는 마비된 부분이 저리고 아프지만 완전히 마비가 되면 죄를 지어도 전혀 _____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엡 4:19).”

2) _____

영적 무기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듣고서도 마음이 _____받거나 _____되지 못하고 영적인 나른함에 빠지는 것이다.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들, 재산 관리, 돈벌이, 여행 계획, 건강과 먹는 것, 즐기기 좋은 곳 검색 등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처럼 _____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만 _____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5. 욕신을 따르는 자는 <욕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욕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 8:5~8).”

3) _____

우리의 또 다른 장애물은 _____ 하는 것이다. 만일 누구라도 돈을 버는데 쏟아붓는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 찾기에 쏟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신앙이 달라질 것이다.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 차지가 되고 하나님께는 _____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새것은 자신이 가지고 _____ 헌것만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그분께 드리고,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사용함으로 결국 우리가 _____을 받는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마 13:22).”

4) _____

또 하나의 영적 장애물은 끝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몸의 안락, 맛있는 음식, 육신적 쾌락, 세상적 유희와 오락 등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준다. 이런 모든 것들은 _____에 즐거움을 주는데, 이는 어린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빨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다를 바 없는 _____이다. 마땅히 영혼 성장에 시간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한다.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19~20).”

4.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 전진해야 한다.

1)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_____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과제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

으로 우리가 <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이 마땅하니라(히 2:1).”

여기서 ‘유념한다’는 말은 _____ 과 _____
_____을 다시 붙잡으라는 말이다. 적당히, 대강, 그럭저럭하는 신앙
인의 모습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닌 채, 도덕적 무감각,
영적 무기력, 세상의 염려, 즐거움 추구의 장애물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가? 홀려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헬라이어적 표현은 ‘배를
항구에 붙들어 매다, 닻을 깊은 바닥에 고정시키다.’는 의미를 지니는
데, 결국 느슨해진 헌신과 소홀해진 신앙을 재정비하지 못한 채 장애
물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닻을 내리지 못해
_____처럼 되고 말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2)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_____
하는 노력이다. 유념하고 붙들어 매야 한다. 그러나 악의 세력들은 우
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그들
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만족을 얻도록 미혹하고 나
역하게 만들어서 결국 _____으로서가 아닌 그저 그런
_____으로 전락시키길 원한다.

3)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
으로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_____
_____인지를 말해 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체험은 그것을 방해하

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_____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영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면 장애물은 _____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야말로 우리들의 본래적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축복이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 앞길에 놓아둔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라. 느슨해지고 소홀해진 신앙의 모습들을 붙들어 매라.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항구에 닻을 내리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이 회복됨으로 불안과 염려와 전전공공하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Day 2

더 깊은 성소에까지 나아가라

히브리서 9:11~12

“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 우리의 영적 상태는 _____ 와 관련된다.

- 1) 부흥과 부흥이 아닌 영적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_____
_____ 과 관련된다. 교회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줄어들고, 교회의 영적 상태가 좋을수록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_____ 하기 위해 모일 때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_____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2)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_____ 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 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0~22).”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_____ 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드리는 예배는 열납되지 않는다. 종교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_____ 에서 결정된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 3)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할 때 가인은 죄인이고 아벨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인도 아벨도 둘 다 _____이었다. 다만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_____ 행동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사의 결과를 자신의 문제가 아닌 _____으로 돌리고 그 잘못된 결과인 아벨을 죽임으로 _____한 것이다.
- 4)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가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앞 장에서 언급한 장애물들, 도덕적 무감각, 영적 무기력, 세상의 염려, 즐거움 추구의 문제와 사투를 벌이며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럭저럭 종교적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_____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심판한다. 원망과 불평이다. 가인도 그랬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창 4:6).”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반

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은 아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_____을 바랐기 때문이다.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아벨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아무 _____ 착각했기 때문이다.

- 5) 당신의 예배가 공허한 종교의식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길 원하는가?

2. 하나님은 _____을 통해 임재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 1) _____

바깥뜰은 성막의 외부에 있었고, 성전시대에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오는 사람들은 _____이 있지만 _____를 두는 사람이다. 종교가 주는 유익들을 얻기 위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 때문에 _____을 원치 않는다. 바깥뜰까지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_____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가 치르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장례 때나, 도움이 되는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린다. 이렇듯 바깥뜰은 _____은 가지지만 끝까지 가는 것을 거

부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2) _____

안뜰에서 사람들이 찾는 곳은 제단과 물두멍, 두 군데이다. 제단은 늦으로 만들어졌고 뚜껑이 없고 석쇠가 있는 화로와 같은데, 아랫부분에 불을 넣고 짐승의 제물을 올려놓으면 그 고기가 타면서 연기가 치솟는 곳이었다. 제물의 피와 버려질 부분, 태울 제물이 분리되고 온갖 악취가 나는 곳이 제단이었다. 이것은 그다지 좋은 광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대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희생의 제물과 피가 흐르고 지지분한 제단을 거부한다. 그들은 종교란 _____ 없이 보기 좋고 _____을 좋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희생이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분명히 아니다. _____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_____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을 지닌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제단의 희생과 피흘림을 거쳐야 다음에 나오는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다. _____은 먼저 희생과 헌신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다. 희생과 헌신 없이 깨끗해질 수는 없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_____가 드러져야 한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역스러운 희생과 헌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물두멍에서 나가서 씻을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3) _____

우리는 안뜰을 지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은 성소이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_____, _____, _____.

등잔대에서 비추는 일곱 빛은 _____을 가리키며, _____를 가리킨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쉰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계 4:5).”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요 15:26~27).”

진설병상에 놓여진 떡은 _____ 자신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요 6:35a).”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에서 모세가 주었던 광야의 떡과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을 비교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

분향단은 향기가 나는 _____
을 가리킨다. 분향단에서는 향기가 나는
향을 놓고 태워서 성소 안에 가득하게
향기를 채운다. 기도와 더불어 찬양은 꼭

조있는 기도이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8).”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약 5:13).”

- 4) 오늘 본문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성소까지 들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1~12).”

그러므로 온전한 장막인 교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들어가

신 성소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일곱 빛, 진리의 빛 곧 복음 선포를 통해 환하게 밝혀지는 _____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모이는 _____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향기로운 기도와 찬양의 향이 올라가는 _____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진리의 빛을 선포하는 _____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세상의 떡보다 더 사모하는 _____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향기로운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_____의 모습이 있는가?

3. 희미한 빛, 곰팡이 핀 떡, 향기 없는 향에 신물이 나다.

- 1)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_____을 받을 정도로 _____해야 하고, 하나님의 _____해야 한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바깥뜰에서 어슬렁거려서는 안 된다. 안뜰의 희생과 헌신을 거쳐 정결하게 되어서, 결국은 _____에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2)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인공적인 빛, 곰팡이 핀 떡, 그리고 향기 없는 모조품 향에 신물이 났다. 세상적인 싸구려 모조품들이 교회와 예배에 깔려 있는 것에 실망해 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_____이 힘 있게 선포되는 빛을 발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는 _____이 증거되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는 _____의 향기로운 향내로 충만하게 성전을 짝 채우는 교회이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굶주린 영혼들에게 영혼의 떡을 제공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임재하시는 기도와 찬양의 향이 가득해야 한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 성소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한다.

Day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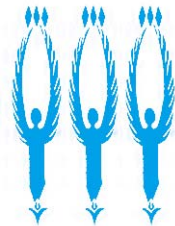
찢어진 휘장 속으로 들어가라

히브리서 10:19~22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어려운 이유(1) : _____ 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 1) 성막에서 가장 안쪽인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것이 휘장이다. 이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증거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가 놓여 있었다. 하나님은 이 속죄



소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다. “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 25:21~22).”

2)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의 속죄소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보좌라는 뜻에서 시온소 혹은 시온좌로 불렀다. 하나님은 이 휘장 안쪽 지성소의 속죄소에 임재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구름이 성막에 드리워져 성막을 가렸는데, 이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출 33:9).”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출 40:38).”



3) 이 구름 속에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지성소에서만 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알게 된다. 그것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

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오직 _____
 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의 속죄소, 하나님의 임
 재가 있는 쉼기나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
 이다.

2.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어려운 이유(2) : _____
않기 때문이다.

- 1) 성경은 성전에서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_____
 을 뜻하는 ‘쉼기나’라고 불렀다. 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구약의 단어들은 동일한 단어였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_____ 하는 것이다.

- 2)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라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
 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시 27:4, 8).”

이 구절에서 얼굴과 동일한 단어가 _____이다. 임재는 _____
_____ 일어나는 사건이다. 즉 같이 있어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으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의 문제점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것이다. 등을 돌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3)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_____이 없고, _____이 없고, 주님의 얼굴을 뵈고자 하는 _____이 없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여전히 인상을 쓰고 여전히 불안하며 여전히 마음이 짓눌려 무거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간절함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절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된다.

3. _____을 다시 껴매지 말라.

1)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_____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휘

장을 찢으셨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쉼기나가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축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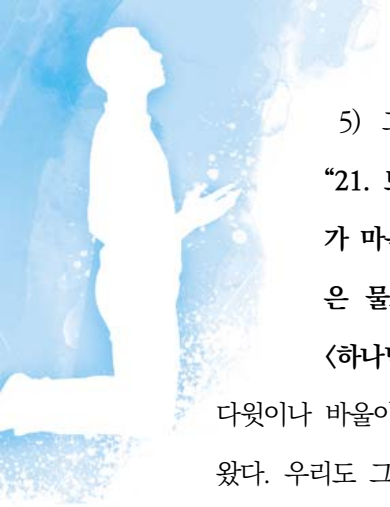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의 육체니라(히 10:19~20).”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을 얻었다. 더 이상 지성소는 범접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
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누구나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완전히 제
거하셨다.

- 2)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휘장이 중
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니 이미 예
수님의 피로 휘장은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거되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휘장은 하나 더 있다. 하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거하
신 휘장이지만, 다른 하나는 _____가 쳐놓은 휘장이다. 예
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휘장을 찢어놓으셨지만, 우리
는 바쁘게 손을 놀려 휘장을 다시 꿰매어 쳐 놓았다. 자기사랑, 자기

만족, 자기도취, 자기신뢰 등 _____들로 엮어 만든
휘장이다.

3)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 지성소에 이르기 원
치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려면 _____을 살아야 하기 때문
이다. 가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계속 함께 거하고 함께 사
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보라. 하루는
지낼 수 있어도, 항상 긴장하고 정장 차림으로 있어야 하고 여러 불편
함이 있어서 계속 같이 사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 자기중심적 죄를 지닌 사람들,
자기사랑, 자기만족, 자기도취, 자기신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휘장을 다시 꿰매고 마는 것이다.

4) 그래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천국
에나 가서 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지루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의 고기 가마(출 16:3)로 돌
아가고 싶어할 것이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
질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_____
_____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



5)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오늘 본문 말씀.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1~22).”

다윗이나 바울이나 스테반과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에 항상 있어왔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분한 기쁨을 누리보지 않겠는가?

- 6)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로 깨끗하게 씻긴 _____을 지녀야 한다. 자기중심적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진 참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는 _____으로 나아가야 한다. 온전한 믿음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우리를 위해 휘장을 찢으신 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한다.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힘들거나 두렵거나 곤욕스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_____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다시 껴매어 막아놓은 _____해야 한다.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온 오래된 휘장을 조금도 남김없이 찢고 제거해야 한다.

7)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외로움과 염려와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오직 _____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며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고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 위해 우리는 _____해야 한다. 하나님이 쉼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_____가야 한다. 하나님을 _____로 나아가야 한다. 그분의 _____해야 한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시 16:11a).” 하나님 앞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을 말한다.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되면 _____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 이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_____을 경험하게 된다.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시 43:3~4).”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
해 노력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스스로 꺾매어 만들어 놓
은 휘장을 찢어버리는 사람을 그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은 그의 평생 도안 흠모와 찬양의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
한 기쁨으로 삶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휘장을 찢고 지성소
에 들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충만
한 기쁨, 아름다움의 향기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



Day 4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결단을 하라

히브리서 10:23~25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23절)’, ‘서로 돌아보자(24절)’, ‘모이기를 폐하지 말자(25절).’ 이 권면의 말씀에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영적 진보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 준다. 우리 영혼의 영적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_____ 해야 비로소 영적 진보가 가능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_____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주어진 시간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_____ 해서 훈련에 임해야 한다.



1. 믿음으로 _____.

- 1) 성경의 첫 번째 권면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23절)”라는 말씀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_____을 통해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_____을 걸으라고 말씀한다. 한 번에 날아오르기보다는 매일 매일 꾸준히 걸으라고 말씀한다. 이 꾸준한 걸음의 끝에 어느 순간 우리는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예녹이 300년간을 _____(히. 할라크 : 걷다)한 후에 홀연히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 것처럼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_____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날아오를 수는 없다.

- 2) 그러나 이렇게 걷는 일은 너무도 힘들다. 때로는 그만 걷고 싶은 때가 온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만 포기할까 생각이 드는 때도 있다. 왜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다 소용없는 일들이 아닐까? 하며 회의감과 _____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

- 3) 이럴 때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방법은 어려움을 _____이다. 신앙은 버티어 내는 것이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버티고 걸어 내는 것이다. 나를 어렵게 한 일

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견디고 버티어 내다보면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들보다 _____ 살아내게 된다. 당신도 지긋지긋하게 힘든 것들을 견뎌내라. 계속 버텨라.

이웃집 사람이 밤낮으로 시끄럽게 하고 소음을 내더라도 기도하면서 버텨라. 그 사람보다 오래 살아라. 그가 언젠가는 이사갈 것이니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버텨라. 직장의 상사가 힘들게 해서 출근이 몹시 부담스러운가? 직장의 일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상사 때문에 직장을 옮기려고 알아보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밀고 나가라. 그러면 머지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상사가 전근을 거거나, 승진을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 가거나, 당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계속 버텨라.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결코 _____이다. 걱정하지 말고 더 오래 살고 버텨라.

- 4)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말한다. 이것은 버텨내라는 말씀이다. 그냥 오기로 어저지로가 아니라 _____을 근거로 버텨내라는 것이다. 그냥은 안 된다. _____ 소망을 가질 때, _____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견딜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단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아버지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 후 그 일이 지나가 버린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언젠가는 _____
_____.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보다 _____
된다.

2. 서로 _____.

- 1) 본문의 또 다른 권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24절)”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_____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나님은 _____
_____을 우리의 어깨 위에 얹어 놓으셨고, 그 _____을 물으실 것이다.
- 2) 성경 전체에서 가장 뻔뻔스럽고 냉소적인 말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 4:9)”라는 가인의 말이다.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후에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에는 “내 아우에 대해 왜 내게 묻습니까? 내 인생이 그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합니까?”라는 뜻이 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반드시 _____도 _____져야

한다.

모든 이들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_____을 미친다. 어떤 신앙인은 다른 신앙인들과 친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은 힘써 노력해야만 겨우 영적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_____ 있는 것이다.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옆에 있기만 해도 신앙적으로 _____을 주기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며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런 신앙인은 본문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성경적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다.

3. 모이기를 _____.

1) 마지막 영적 훈련은 “모이기를 폐하지 말자(25절)”라는 것이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_____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교회 출석이 문제가 된다면 뭔가 영적 잘못됨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 모임이 지루해지거나 실증이 날 때 우리는 많은 이유를 갖다 댈다. 그러나 사실 원인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의 _____이 _____해졌다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왔던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고,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경의 뜻을 살피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며,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_____한 이래 계속 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_____에 강하게 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3)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은 _____이다. 정글의 동물들도 물을 마시러 가는 물웅덩이에 모두 모인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모이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물웅덩이에서 모인다. 그곳에 _____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다.

양치기들은 무리에 _____ 좋아하지 않는 양이 생기면 그 양이 _____ 판단한다. _____은 혼자 수풀 뒤에서 방황하다가 죽지만, _____은 다른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좋아한다.

4)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가 _____ 하기 때문이다. 다른 신앙인들에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낄 때야 말로 그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때이다. 개인으로서 신앙인에게는 _____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골방에서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계속 혼자여서는 안 된다. 동시에 회중이 모이는 집회에 나가야 한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 회당에 가셨다. 즉 예수님은 _____이 있으셨다. 회당에서 듣는 메시지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가셨다. 적어도 본질적으로는 _____와 _____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교회에 나아가라. 신앙 모임에 참여하라. 주님이 나가셨으므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

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에는 성경적 전통이 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의 결단이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견고 버텨내야 한다. 믿음은 버텨내게 만든다. 결국 견디는 자가 더 오래 살아남고, 결국 모든 괴로움과 고통도 사람도 환경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둘째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말과 삶과 언어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돌아봄을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폐하지 않는 것이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법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은 공동체를 통하여 온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다.



Day 5

하나님의 임재 유지를 위한 영적 연료를 공급하라

히브리서 10:36-39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 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은 _____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은 우리 영적 싸움의 _____에 불과하다. 우리 영적 싸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분 앞에 _____이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계속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임재를 향한 열정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_____가 지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

1. 영적 연료(1) : _____ 믿음을 길러라.

1)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매가 주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들은 장래, 먼 훗날 후손들이 _____를 바라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믿음은 _____이었다.

2)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겼으며,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긴 안목으로 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대부분 _____를 못보고 죽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금은 _____ 있다.

중간기 히브리문서인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손길을 뺏지 못할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불행으로, 그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이 완전한 멸망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평안 중에 있다(3:1~3).”

3)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그저 그런 _____
_____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



들은 지금은 너무 커서 _____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싸구려 값어치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당장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을 주시려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_____ 하실 것이다.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버섯을 원하는가? 버섯은 하룻밤 만에도 자란다. 비만 오면 내일 아침에 버섯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참나무를 원한다면 70년을 기다려야 한다. _____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할수록 _____이 필요하다. 더 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 4) 너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급란대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13.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시 106:13~15).”

- 5) 하나님에게서 큰 것을 기대한다면 _____하며 기다려

야 한다. 당장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_____ 들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우리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 등. 이러한 크고 위대한 일들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

2. 영적 연료(2) : _____ 이 아니라 _____ 으로 살아라.

- 1) 성경은 “의인은 그의 감정들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한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씀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히 10:38a).”

이 믿음은 _____ 을 말한다.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행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온전한 확신을 가리킨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_____ 되는 것이다.



2) 영적 느낌이 전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아무리 믿음
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_____을 경험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_____ 살아야 한다.

15세기 영성가 토마스 아 켐피스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그분의 위로를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나는
노래하고 싶은 _____마저 사라져 버린다(감정의 문제). 그분의 위
로가 사라지면 나는 그분이 다시 위로를 주실 때까지 _____
_____를 받아들이고 견딘다(믿음의 문제).”

3) 의인은 아침에 _____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아침에 _____ 하
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일을 시작한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_____이다.

4) 결국 의인은 _____이 아니라 _____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
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고, 앞으로 하
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도우러 분명히 오실 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히 10:37~38a).”

3. 영적 연료(3) : _____ 를 차단하라.

1) 우리의 문제점은 자주 _____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순간 이르렀다 해도 우리는 금방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가 버린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20.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렁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벧후 2:20~22).”

2) 그러므로 돌아갈 _____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기존의 삶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자의 삶을 선택하면서 엘리사는 자신의 결심에 대한 회의감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짰다. 그것은 자신의 소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소의 기구를 불태워버리는 것이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왕상 19:21).”

3) 엘리사는 정리를 마쳤다. 퇴로를 차단했다. 만일 누가 엘리사에게 “엘리사,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엘리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소들은 죽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구들은 다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내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고 _____ 을 한 것이다.

4) 믿음의 사람들은 _____ 않는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의 영적 상태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 여기서 그만 둘까? 그만 멈출까? 다시 이전처럼 그냥 지낼까? 계속되는 회의감과 유혹에서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

게 지켜야 한다. 퇴로를 차단하라. 다시 돌아갈 곳이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확고한 결단을 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8b~39).”

하나님 존전에 나가고 그분 앞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앞에서 계속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냥 놓아버리면 바로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다. 계속 유지하려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적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라. 멀리 보는 믿음을 기르고, 감정보다는 믿음으로 살고, 퇴로를 차단하는 결단을 지속적으로 해아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 곁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옛 모습, 옛 최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분 앞에 계속 머무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



Day 6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습관화하라

히브리서 12:15~16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가끔씩 행하는 일이 아니라 _____
_____으로 행하는 일이다. 어쩌다 한 번 흡연을 친 타자를 흡연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연히 경기가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서 흡연을 쳤다고 그것을 실력으로 보지 않는다. 흡연 타자는 꾸준히 흡연을 친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지 않았다. 의사가 물어본다. “약을 드셨습니까?” 그러자 환자는 “기분 내킬 때만 가끔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약을 제대로 복용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은혜와 강건함은 _____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규칙적으로 행하는 습관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 영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_____ 뜨거워진 사람이 아니라 _____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습관화한 사람이다.

1. 습관화 훈련(1) : _____을 이겨라.

1)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만만치 않은 강적이다. 세상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을 지배한다. 즐거움과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과 경쟁하며 비교하며 정신없이 달려가게 만든다. 세상은 가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놓여 있다.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5~16).”

2)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대신하는 _____들이 우리 삶을 갇아먹고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하나님의

_____ 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 우선 우리의 _____
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영적인 일이 아닌 세상적
인 것으로 돌리는 것이 사탄의 주요 목표이다. 다음으로 _____
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한 관
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에 휩싸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집중력과
기대감을 잃으면,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가끔씩 하나님 찾고 나머지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비교와
불안과 낙심으로 _____ 삶을 살게 된다.

4)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
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6).”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을 이
기도록 훈련하라. 세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습관을 길러라.

2. 습관화 훈련(2) : _____ 을 갈망하라.

1)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이 단지 호기심이나 상식 거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_____ 이 생겨난다. 그러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내가 몇 번을 읽었는지, 얼마나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_____ 속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2) 매일 성경은 읽지만, 주일마다 말씀은 듣지만,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_____ 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_____ 을 가져야 한다.

3) 성경이 _____ 으로 다가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다가 보면 우리 마음을 붙잡는 구절이나 단어나 내용이 갑자



기 확 떠오르게 된다. 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는 것이다.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깊게 새겨야 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시 119:123).”

시간을 내라.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라. 말씀을 늘 반복해서 들으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3. 습관화 훈련(3) : _____으로 나아가라.

- 1) 우리는 시끄럽고 온갖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영적 훈련 중 하나가 _____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이 고독의 훈련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_____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주 ‘장보기 목록’ 같은 것을 들고 요구한다. 물론 여러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깊은 관계를 맞보는 것도 중요하다.



- 2)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 훈련과 습관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치는 _____을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_____보다 _____에게 먼저 신경을 써 달라고 소리친다. 우리는 그 소리에 쉽게 넘어간다. 그 요구와 관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틈이 없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_____더 중요하지는 않다.
- 3) 물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요구와 관심에 응답하고 일 처리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들에 맞추려고 해도 언제나 _____을 느낀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묵 중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_____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 4)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다. 다른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수고보다도 _____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던 것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한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셀라) 5.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됴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 46:1~3,5,10).”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고독과 침묵을 가지는 것을 시간 낭비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은 극복되어야 한다. 침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치려야 할 대가이다.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시간인 것이다.

3. 습관화 훈련(4) : _____ 을 가지라.

- 1)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_____
 _____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예배나 봉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_____ 사람이 하는 일로 치부되고 만다. 세상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겨우 시간을 내어 헐떡이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는 전혀 _____을 느끼지 못한 채 급히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2)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_____
 를 깊이 있게 느끼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_____이 없다.
 과연 정말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고 있다고 믿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
 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합 2:20).”

3) 우리의 예배와 봉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_____
 _____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
 도 사라진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다. 매일
 매 순간, 교회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 분 앞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고백
 하고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
 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
 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
 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
 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
 라(히 12:15~16).”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예서와 같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적인 일들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시간도 마음도 공간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틈이 없다. 쓴뿌리로 더럽혀지고, 세상적 쾌락인 음행을 좇고,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하여 영적인 축복을 망각한 채 음식 한 그릇에 집중하며 살다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갈망하며, 고독으로 들어가고, 깊은 경외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영혼이 사는 법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선조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은혜를 베풀어주시심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



Season 1

1차 특별토요비전새벽예배

예수님의 제자처럼 쓰임 받게 하소서!

(1) 연약함을 넘어 귀하게 쓰임 받은 제자 <베드로> _ 벰전 4:7~8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2) 사람들을 세우는 영향력을 지닌 제자 <안드레> _ 요 6:8-9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3) 불꽃같은 삶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제자 <야고보> _ 행 12:1~2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4)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한 제자 <요한> _ 요 21:21~23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 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 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 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리라”

(5)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며 사역한 제자 <빌립> _ 요 1:43~45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6)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 제자 <바들로매> _ 요 1:45~51

“45. 빌립이 나dana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dana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dana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dana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날 자녀라 하시네 Who You Say I am

Ben Fielding
Reuben Morgan

A F#m7 E A

자 격 없 - 는 날 왕 께 서 반 기 시 네
내 모 든 - 죄 대 속 하 신 주 의 은 헤
Who am I that the high est King would wel come me.
Free at last, He has ran somed me His grace runs deep.

A F#m7 E D

잃 어 버 - 린 날 찾 으 을 신 오 - 그 사 랑 여 오 -
나 - 죄 아 죄 대 속 하 신 주 의 은 헤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 sus died for me. Yes, He

F#m7 E D A E

그 신 사 예 랑 수 (아 버) 자 지 예 수 자 유 케 하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
for me. (In My) Fa 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F#m7 E D A 1.

네 주 의 - 자 녀 라 하시 - - 네 - 아 버
네 주 의 - 자 녀 라 하시 - - 네 In My
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2. F#m7 E/G# A

택 하시 - 고 지 키 시 - 며 날 자 녀 라 하시 네
I am cho sen, not for sak en. I am who You say I am..

D F#m7 E/G# A

- 그 의 소 - 유 삼 으 시 - 고 날 자 녀 라 하시 네
- You are for me, not a 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1. D 2. D D.S. Fine

- 택 하 - 독 생 -
- I am Who the

